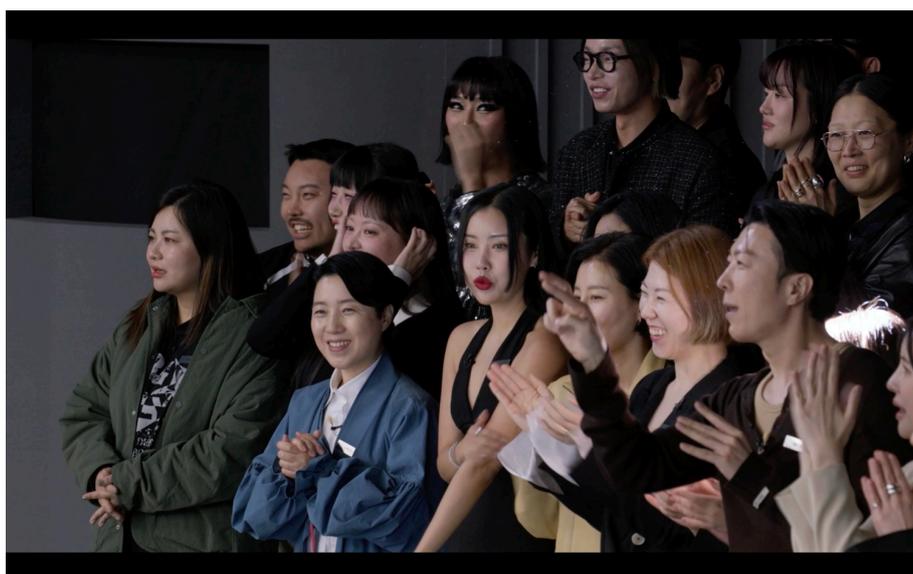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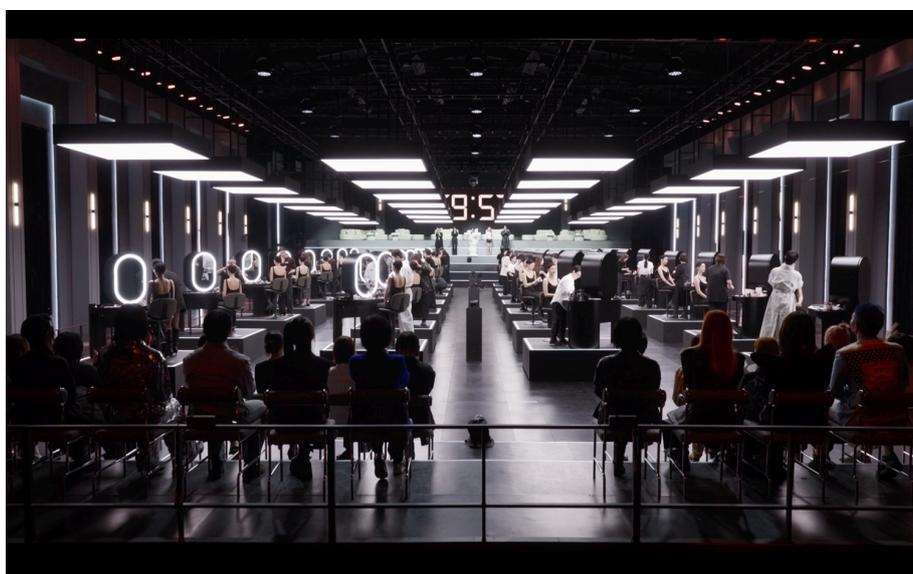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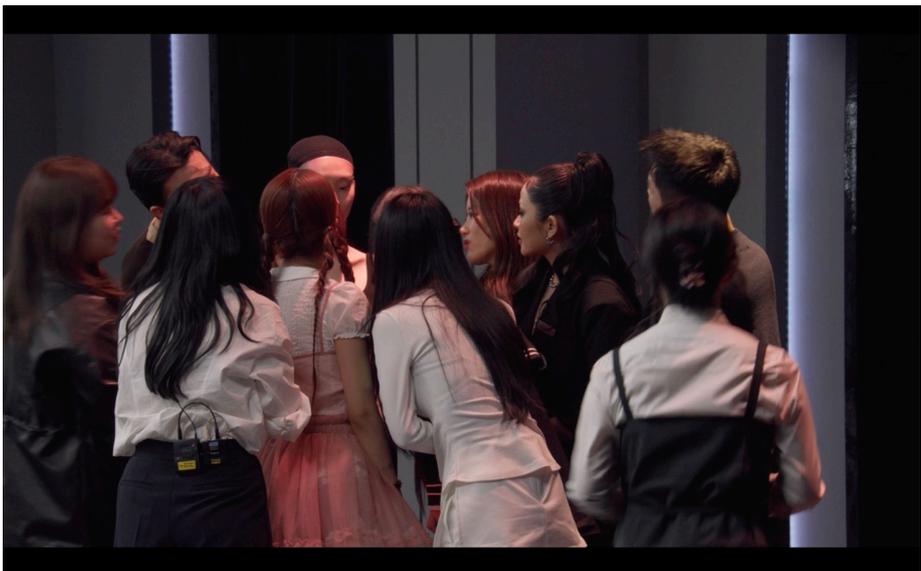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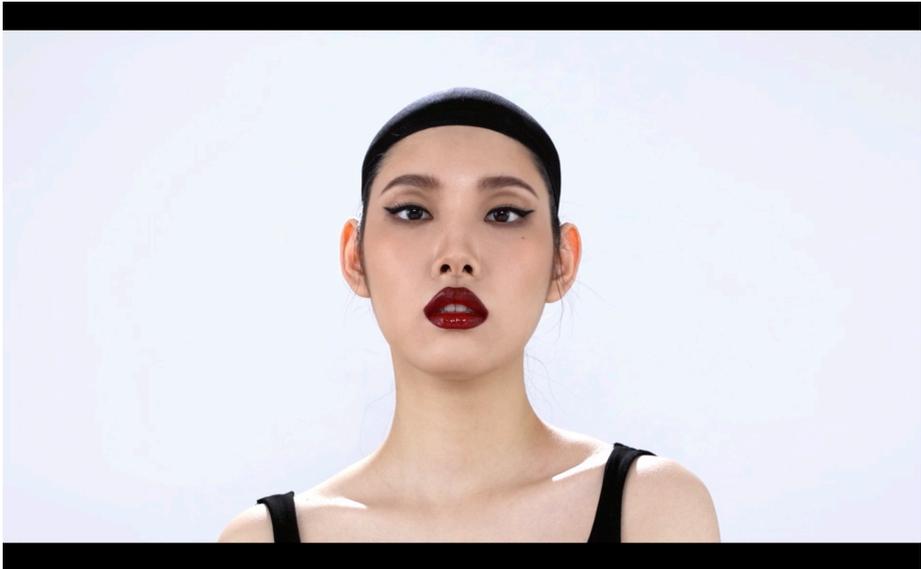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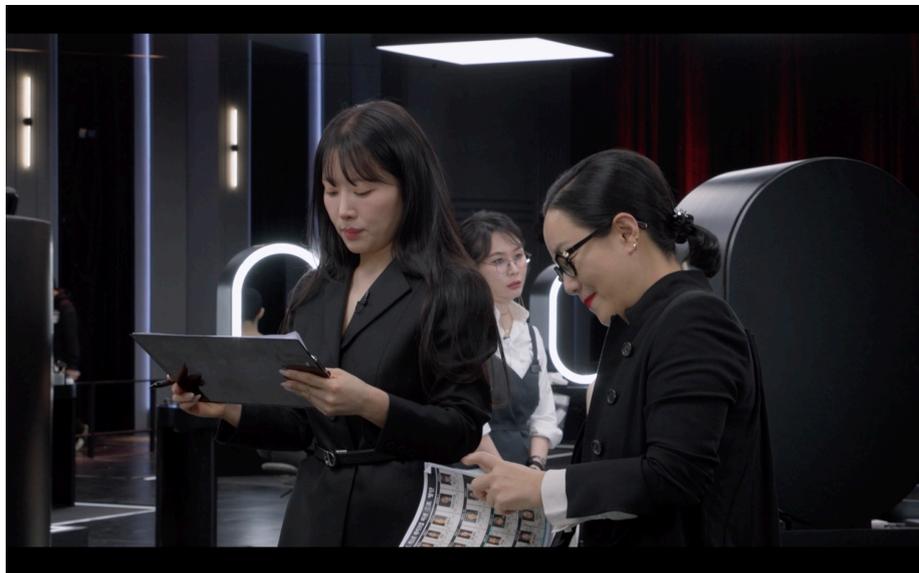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예능 '저스트 메이크업' 첫 공개부터 톱클래스 K-뷰티 서바이벌에 반응 터졌다!

2025. 10. 6.

2025. 10. 06. - 쿠팡플레이 예능 <저스트 메이크업>이 지난 3일(금) 공개된 1, 2, 3화를 통해 K-뷰티 서바이벌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한예슬, 김태희 전담 메이크업 아티스트, 수백만 구독자를 보유한 크리에이터, 청담동 샵 원장 등 국내 최정상급 아티스트 60인이 펼친 첫 번째 미션은 시청자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메이크업 팬은 물론 서바이벌 예능 팬까지 끌어들이며, 첫 회부터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실력, 감정, 스토리가 모두 살아있는 진짜 K-뷰티 경쟁이 시작됐다.







쿠팡플레이 예능 <저스트 메이크업>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K-뷰티를 대표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자신만의 색깔로 치열하게 맞붙는 초대형 메이크업 서바이벌이다.

먼저 첫 번째 라운드 미션 공개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참가자들의 메이크업이 공개되었다. 여기에 심사위원들의 섬세하고 날카로운 평 역시 몰입을 더 하며 <저스트 메이크업>의 화제성을 높였다.

디테일의 정수, 샵 원장들의 정교한 테크닉

청담동 샵 원장 출신 참가자들은 오랜 노하우가 응집된 디테일로 눈길을 끌었다. '손테일'은 미세한 터치 하나까지 완성도 있게 표현하며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고, '뉴욕 마스터'는 섬세한 브러쉬 컨트롤로 글로벌 감각을 보여줬다.

독창성의 향연, 크리에이터들의 창의적 발상

뷰티 크리에이터들은 자신만의 세계관을 담은 메이크업으로 무대를 장악했다. '맥티스트'는 빨대로 물이 튄 듯한 텍스처를 연출해 시선을 사로잡았고, '글리터 마술사'는 청하 롤러코스터 글리터 메이크업으로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줬다. '싹님'은 1세대 뷰튜버다운 노련함으로 독창적인 결과물을 선보이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분장·드랙 아티스트들의 강렬한 퍼포먼스

분장과 드랙 분야의 참가자들은 메이크업을 넘어서 퍼포먼스로 무대를 압도했다. '1세대 명성황후'는 액체 아이라이너를 놓친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해 완성도 높은 룩을 완성했고, 드랙 아티스트들은 색채와 구조를 활용한 과감한 표현으로 심사위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심사위원들의 섬세한 평가, 다양한 관점 제시

정샘물, 서옥, 이사배, 이진수 등 심사위원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시각으로 참가자들의 작품을 평가했다. 기술적 완성도뿐 아니라 창의성, 감정선, 모델과의 조화까지 다각도로 바라보며, 시청자들에게 메이크업의 깊이를 전달했다. 특히 정샘물은 "기술보다 감정이 먼저 느껴졌다"는 평으로 참가자의 진심을 짚어내며 감동을 더 했다.

쿠팡플레이 예능 <저스트 메이크업>이 공개되자마자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초대형 메이크업 서바이벌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압도적인 스케일은 물론, MC 이효리의 유려한 진행,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평가, 그리고 예술 작품을 연상케 하는 60인의 참가자들이 선보이는 결과물까지. 모든 요소가 어우러져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이미 실력자로 유명하신 레전드분들도 많이 나오고 숨은 고수들도 많이 나와서 진짜 다양한 화장 스킬 보여주시는데 진짜 재밌음", "한 편 보고 이따 봐야지 했는데 재밌어서 세 편 한 번에 다 봄", "사실 크게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어도 서바이벌이라서 그런지 재미있게 봄 다양한 메이크업 보는 재미가 있음", "돈 내고 봐야 할 꿀팁들이 많이 나와서 재미있음", "저스트 메이크업 보는 내내 눈이 너무 즐거움" 등 실제 반응을 통해 <저스트 메이크업>에 대한 기대감과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1, 2, 3화를 동시에 공개하며 화제를 모은 쿠팡플레이 예능 <저스트 메이크업>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쿠팡플레이에서 만날 수 있으며 쿠팡 와우회원은 물론 일반회원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